

## 신지애 '생애 최고의 해'

### LPGA 챔피언십 2R 신들린 버디쇼 7언더파 오초아 제치고 단독 2위... '올해의 선수' 예약

폭우 덕에 폭 전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맹타를 휘두르며 '올해의 선수상'을 향해 출발했다.

2라운드에서 단독 2위로 뛰어올랐다. 신지애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턴니안 골프장(파72·6천650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마지막 대회인 LPGA 투어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16번홀까지 버디 6개를 쓸어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합계 7언더파가 된 신지애는 선두 크리스티 맥퍼슨(미국)에 1타 뒤진 단독 2위로 경주를 마무리했다.

대회 첫날 1라운드 때만 해도 "피곤하다. 컨디션이 썩 좋지 않다"고 하소연했던 신지애로서는 이틀간 비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 보약이 된 셈이다. 특히 올해의

선수과 최저타수, 다승 부문에서 경쟁 중인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3개의 제자리걸음에 그치며 신지애에 1타 뒤진 공동 3위로 밀려 기쁨이 더했다. 오초아는 17번홀까지 경기를 치렀다.

1라운드에서 4타나 앞서갔던 오초아를 가법게 추월한 신지애는 24일 열리는 최종 3라운드에서 시즌 마지막 대회 우승과 함께 올해의 선수 등극을 예고했다.

신지애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미 확보한 신인왕, 상금왕에 올해의 선수, 그리고 다승왕까지 4관왕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오초아가 우승하지 않는다면 6위 이내만 입상해도 올해의 선수 트로피는 신지애에 돌아갈 것이다. 오초아는 우승해야만 자력으로 올해의 선수에 오르는 불리한 입장이다.

대회가 4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줄어들자

오초아의 처지는 더 다급해졌다. 신지애가 1타차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19개홀에서 역전 우승을 일궈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2라운드에서 타수를 크게 줄인 신지애는 최저 타수 1위도 사정권에 넣었다.

평균타수 2위(70.27타) 신지애가 최종 라운드에서 1위(70.22타) 오초아와 타수 차를 3타 이상 벌리려 역전이 가능하다.

맥퍼슨은 이날 버디만 5개를 뽑아내며 8언더파 136타를 쳐 단독 선두에 나섰다.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헤더 보우(미국)이 오초아와 함께 공동 3위를 달렸고 박세리(32)와 최나연(22·SK텔레콤), 최운정(19) 등이 4언더파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골프는 인생 함께하는 친구이며 넘어야 할 산”

### 신인상 수상 신지애 '감동의 영어연설' 기립박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신인왕과 상금왕을 확정 짓고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다승왕도 노리고 있는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이번엔 '명연설가'로 기립 박수를 받았다.

신지애는 지난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09 LPGA 투어 시상식에 나와 신인상을 받은 뒤 영어로 약 5분 남짓 인사말 전했다. 연설을 시작하며 LPGA 마티 에반스 커미셔너 대행, 마이클 완 차기 커미셔너 내정자, 스폰서들에게 인사말을 전한 신지애는 "로레나(오초아)도 이번 주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해 딱딱하던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다.

오초아와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다승왕 등 3개 부문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기 바란다"는 말에 일부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이어 신지애는 "1998년 박세리가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것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 그전에는 양전하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골프를 하면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하며 "골프는 인생을 함께 하는 친구면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동생 지원, 지훈과 새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뜻을 먼저 밝힌 신지애는 이어 2003년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신지애는 우리말로 "엄마"라고 부른 뒤 다시 영어를 통해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항상 내 가슴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아버지(신제섭 씨)에 대해서도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시고 또 저에게 많은 영감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가던 신지애는 "그러나 스트레스도 조금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 다시 참석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신지애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이며 행사가 끝난 뒤에는 하나둘씩 신지애에게 다가와 "훌륭한 연설이었다"거나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인사를 했다. 신지애는 "영어 연설이라 연습을 많이 했다.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떨렸다"며 웃어 보였다. 신지애의 미국 매니저를 맡고 있는 양영의 씨는 "어제 1라운드 끝나고도 연습을 많이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고 소개하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프 노튼 변호사가 직접 휴스턴까지 와서 연설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숨은 공로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야구천재 이종범 '골프도 천재'

### 야구인 골프대회 우승... 이대진 롱기스트상

'팔방미인' 이종범의 11월이 짙다. KIA 타이거즈의 백전노장 이종범이 실세 없이 이어지는 스케줄로 어느때보다 분주한 11월을 보내고 있다.

야구면 야구, 방송이면 방송. 찾는 곳도 많다. 어린 후배들을 이끌고 12년만의 우승을 이끌었던 백전노장 이종범은 14일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한·일클럽 챔피언십에서도 3타수 2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다시 한번 노장의 힘을 과시했다.

챔피언십이 끝난 뒤 일본에서 온전 훈련을 했던 이종범은 21일 귀국하자마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일 MBC의 무릎파도사 출연해 자신의 야구 인생을 풀어놓았던 이종범은 22일에는 단국대학교 축전퍼펙트를 찾아 김상현, 서재응, 나지완, 양현중, 안치홍과 함께 KBS의 출발 드림팀 시즌2에 출연했다.

이종범은 깜짝 댄스와 구수한 사투리로 활영장을 발각 뒤집어놓았다. 이종범이 출연한 두 프로그램은 아직 방영전이지만 벌써부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밤늦게까지 방송촬영을 했던 이종범은 23일 감칠 체력을 과시하며 다시 한 번 사 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종범은 23일 경기도 남양주 해비치 C.C

에서 열린 제28회 야구인골프대회에서 68타(핸디캡을 적용한 네트스코어)를 기록하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종범은 핸디캡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80타를 적어내며 남다른 골프 실력을 과시했다.

이종범은 야구계에서 '구(球)신'으로 통한다. 화려한 발제간을 보유한 이종범은 축구는 물론 당구, 볼링 등 공으로 하는 스포츠에 통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팔꿈치 수술' 한기주 27일 귀국... 본격 재활



수술대에 올랐던 KIA 타이거즈 투수 한기주가 27일 귀국한다.

지난 9일 수술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한기주는 20일 LA조브클리닉센터에서 오른쪽 팔꿈치 내측 인대 재건술과 팔꿈치 뒷 편에서 뼈조각 2개를 제거하는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한기주가 받은 내측 인대 재건술은 손상된

인대 부위에 자신의 다른 부위 인대를 이식하는 '토미존 서저리'로 재활에만 10~12개월이 걸리는 대수술이다.

앞선 17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던 한기주는 병원 사정에 따라 20일 수술을 받고 현재 통증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6일 최종 검진을 받는 한기주는 다음날인 27일 귀국한다.

한기주는 귀국후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갖고 복귀를 준비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이종범이 23일 경기도 남양주 해비치 CC에서 열린 제28회 야구인골프대회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이종범은 68타(핸디)를 적용한 네트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했다. (스포츠조선 제공)